

광주 신창동에 선사체험 학습관 들어선다

내년 초 착공 2020년 완공 사냥·벼농사 등 체험 위주 공원형 조성 주민참여 유도

신창동 유적지는 2000여년 전 선사시대 역사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다. 1990년대에 다양한 생활유물이 나와 화제를 모았다.

북구 운암산에서 북서편 영산강이 흐르는 곳이 신창지구다. 신창유적지는 영산강 유역의 충적대와 낮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북쪽 1.5km에 월계동 장고분(기념물 제20호)이 있다.

신창동 유적지가 위치한 곳은 기원전 1세기 경에는 배후습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습지에 버린 생활도구들이 큰물이 밀려나 한꺼번에 흠모래에 덮혔고 이후 발굴이 됐다. 전문가들은 “적갈색 황토사 질층이 흑갈색 유기물층을 감싸서 보존된 저습지 유적”이라고 했다.

국내 최대 선사문화 복합유적지이자 대표적인 저습지(低濕地) 유적지인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 선사체험 학습관이 들어선다.

신창동 유적지는 세계 최대의 벼 생산 유적을 비롯해 각종 칠기와 수레바퀴 등 국내 최고의 선사시대 목기(木器)유물이 출토돼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논벼(수도·水稻)와 밭벼(육도·陸稻)의 생산기반을 가진 선사유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을 갖춘 곳이다.



광주시 신창동 유적 삼국시대 집터.

〈광주일보 자료사진〉



빗

따비(농기구)

비단편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유적지 내 1만500여㎡ 부지에 전체면적 3000㎡ 규모의 선사 체험 학습관과 5000㎡ 면적의 야외 체험 학습장을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한다.

학습관에는 선사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실을 비롯해 체험실, 수장고, 시청각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야외 학습장에는 어린이 선사유적지 발굴 체험장뿐 아

니라 옛 선조들이 경작했던 벼농사 체험장, 원형과 장방형 등 형태의 움집 체험장이 설치된다. 또한 사냥과 어로 체험장, 망루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과거 생활방식 등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먼저 내달 선사체험 학습관과 야외 체험장의 전시와 체험시설에 대한 기본 구상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간

다. 이후 5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친 뒤 오는 2019년 초 공사에 들어가며 사업비는 120억 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2016년 신창동 유적 활성화 전담팀(TF)을 구성해 선사체험 학습관 건립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문화재청과 예산 지원, 사전평가 등 협의를 마친 상태다.

광주시는 신창동 유적지가 대도시 인구 밀집지에 있는 만큼 공원형 선사문화 유적지로 정비하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도시민의 여가 공간 활용, 주민참여 유도, 각종 선사문화 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신창동 유적지에서는 초기 철기시대부터 마한 초기에 이르는 유물 등도 발굴돼 학계 관심을 끌었다. 이곳을 매개로 ‘잃어버린 역사’로 인식되었던 마한의 초기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물론 영산강권 유역에는 기원전 3세기부터 4세기까지 정치체를 형성했던 마한 유적 523건(문화재 지정 38건)이 산재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창 유적지는 학술 가치와 선사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정체성을 가진 유적이지만 40여 년간 학술적 발굴과 보존에 치중했다”며 “향후 다양한 체험 위주의 학습관을 건립함으로써 유적의 보전·관리, 활용 등 지역의 대표적인 열린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가 걸어온 길

광주문화재단 ‘...2017 연차보고서’ 발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활동 사항을 담은 책자가 나왔다.

광주문화재단은 2017년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광주의 활동을 기록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2017 연차보고서’(사진)를 발간했다.

2018년도에는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2014년 12월)된 지 4년이 되는 해로 미디어아트를 특화한 전시 30건 개최,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12건, 학술행사 9건 그리고 국제교류 4건 등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활발한 창작과 교류활동을 진행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2017 연차보고서’는 총103쪽 분량,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미디어아트와 창조’의 장은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창작활동을 ‘전시’, ‘레지던스’, ‘퍼포먼스’ 등으로 나누어 광주의 예술인들의 활동을 짚어 본다.

2장 ‘미디어아트와 확산’ 장은 축제나 포럼 등을 통해 광주가 미디어아트



를 시민들과 어떻게 공유하고자 노력했는지 기록하고 있으며 3장 ‘미디어아트와 교류’의 장에서는 광주가 세계 속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어떠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하였는지 보여준다.

4장 ‘미디어아트와 플랫폼’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허브공간으로 2017년 새롭게 문을 연 미디어아트 특화시설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5장 ‘향후계획’에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A.M.T센터 조성계획과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등 창의도시 조성과 관련한 광주의 밑그림을 소개한다. 문의 062-670-74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말로 읽는 카자흐스탄 실크로드 문화

문화재연구소, 번역서 발간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문화 우리말로 읽는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직무대리 이상준)는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를 소개하는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한국어 번역서(사진)를 발간했다.

문화재연구소는 한국 고대 문화 원류를 복원하고 실크로드 선상에서 중앙아시아, 몽골 등 여러 국가와의 교류를 밝히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한민족 고대문화 네트워크 복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저자 카를 바이파코프는 고고학 전공자로 카자흐스탄 국립학술원 원사이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한 ‘탈기르-3 성지’ 발굴 등 카자흐스탄 주요 유적 발굴에 참여했다.

책은 총 9부로 구성됐다. 카자흐스탄 실크로드 상에 자리한 오아시스 도시들을 중심으로 유적과 유물, 자연과 민족, 교육,



카자흐스탄 고분군 11호분 묘실.

공예, 종교, 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특히, 고대 도시 성터에서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를 고고학 자료에 근거해 그간의 연구성과와 함께 반영했다. 풍부한 도판도 함께 수록돼 있어 보는 즐거움도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공예품 만들까 남도음식 차려볼까

광주 북구 상반기 강좌 수강생 선착순 모집

광주시 북구가 광주전통공예학교문화학교와 남도향토음식 박물관 전통음식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제18기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는 다음달 14일까지 수강생 1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도자기, 소목, 탕화, 민화, 천연염색 등 5개 강좌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초급반은 전통공예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연구반은 초급과정 수료자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은 주민이면 된다.

또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도 개설한다. 초급반은 매주 1회, 연구반과 주말반은 격주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과정별로 연 20~45만원이다.

강사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 전수자인 여영미씨를 비롯해 송동진, 최경연 등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이수자와

전통공예 전문가가 참여한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도 ‘2018년 상반기 전통음식강좌’를 개설하고 내달 23일까지 수강생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전통음식강좌는 ▲떡·한국 ▲향토음식 ▲폐백·이바지 ▲자연주의 음식 ▲발효·저장음식 등 5개 분야로 운영되며 3월부터 6월까지 15주 과정(주회 강의)으로 구성돼 있다. 수강료는 과정별로 12만원(재료비 별도)이다.

강사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인 이예씨씨와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 이수자인 조유순, 정금례 선생 등이 참여한다.

수강료 감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062-571-0688)와 남도향토음식박물관(062-410-66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 ‘광대의 꿈 소풍’ 앵콜공연



3월2일까지 광주예린소극장

지난해 무대에 올랐던 연극 ‘광대의 꿈 소풍’(사진)이 앵콜공연을 갖는다. 18일부터 3월2일까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예린소극장.

이번 연극은 ‘살이 아름다운 이유는 살아가는 때 순간마다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제를 담았다.

‘광대의 꿈 소풍’은 작가이자 출연자 윤여송의 자전적 이야기다. 1980년대 약몽 같았던 삼정교육대에서의 기억을 잊기 위해 연극에 빠져들어 현실 속에 묻히는 것을 거부하고, 평생을 연극 무대에서 살아 온 노 배우의 삶의 궤적을 따라 인생의 의미와 우리

시대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기획됐다.

연극은 일생을 바쳐 지켜온 자그마한 소극장에서 마지막 공연을 끝내고, 지나 온 여정을 더듬으며 추억에 잠긴 노 배우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자신의 삶이 녹아 있는 무대를 바라보며 긴 여정의 끝자락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잊고 지냈던 후배가 극장을 방문한다. 어색한 만남에 잠시 망설이던 두 사람은 이내 소주잔을 기울이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토해내고, 점차 연극에 빠져들었던 20대의 청춘으로 돌아간다.

한중군이 연출을 맡았으며 한경모 역에 윤여송이, 박상현 역에는 임홍석이 출연한다. 관람료 일반 2만원, 중·고등학생 1만원. 문의 062-223-2690, 010-4123-6080.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